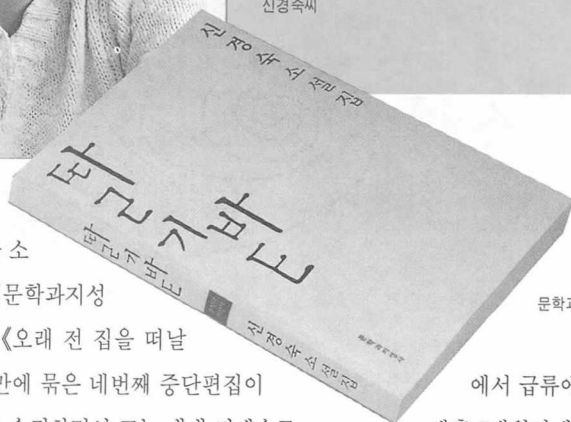




신경숙씨



문학과지성사/A5신/310면/7500원

생의 이면을 들여다본 작가의 원숙한 시선

소설집 《딸기밭》 펴낸 신경숙씨

신경숙씨의 네번째 중단편집 《딸기밭》은 인간의 근원적 상황을 바라보는 원숙한 경지를 담았다. 느닷없이 찾아드는 죽음, 존재의 불안감, 삶의 비극성이 물의 상상력 속에 녹아들어 있다.

그는 특히 최근작 <딸기밭>에서 소설문법에 새로운 출구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이야기한다.

신경숙씨(37)가 소설집 《딸기밭》(문학과지성사)을 펴냈다. 《오래 전 집을 떠날 때》 이후 오년만에 묶은 네번째 중단편집이다. 이 작품집을 손질하면서 그는 내내 키에슬로프스키의 영화 <베로니카의 이중생활>(원제 '두 겹의 삶')의 사운드 트랙을 들었다. 이 소설집의 제목을 '두 겹의 삶'으로 삼을까도 생각했다.

“그 말에 공감해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안과 밖, 나와 타자, 삶과 죽음처럼 두 겹으로 돼 있어요. 소설집을 정리하면서 보니 내 소설 속에 그런 모습이 담겨 있더군요.”

인간의 근원적 상황을 바라보는 원숙한 시선
문학평론가 김병익이 지적했듯, 이번 작품집에서는 개인사적 서사가 줄면서 타자·외부와 자아의 거리를 묘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인간의 근원적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욱 깊어졌다. 공식적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한 지 15년. 이번 작품집에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전에도 비자전적 소설이 있었어요. 다만 널리 알려진 작품 가운데 자전적 요소가 많았을 뿐입니다. 아마 타자와 소통하고 싶은 욕망이 개입해 이전과는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5년 사이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겠지요.”

이번 작품집에서 여러 모습으로 변주되는 주제는 죽음, 존재의 불안감, 느닷없이 찾아오는 삶의 비극성이다. 동생 미란의 돌연한 자살, 지리산

에서 급류에 휩쓸린 '나'의 죽음, 생후 7개월만에 태어난 딸을 산에 묻는 남편, 아내의 불륜으로 고뇌하는 남편 등이 계면조의 가락 속에 녹아 있다. 그는 왜 불행에 눈길을 주는가.

“성향이겠죠. 어릴 때부터 슬프거나 어그러지는 것을 유심히 봐왔어요. 죽음이나 슬픔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탐구해보고 싶었어요. 문학은 아마 우리 생의 뒤편을 들여다보는 일일 거예요.”

또 하나, 이 소설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물의 이미지가 자주 등장한다는 점이다. <딸기밭>에서 '유'는 외딴 개울에서 목숨을 잃고, <그가 모르는 장소>의 배경은 호수다. <작별인사>의 주인공 M은 지리산 계곡에서 급류에 휩쓸리고 <그는 언제 오는가>에서 제부와 처형은 남대천으로 찾아간다.

“물 속에 비치는 형상은 하나도 거짓된 것이 없어요. 문학적 상징으로서 물만큼 매혹적인 소재도 드뭅니다.”

욕망의 이중구조, 에로티시즘의 전경화

이 책에서 표제작 <딸기밭>은 단연 이채롭다. 범 죄형 남자와의 사랑에 거침없이 빠져들었던 '나'는 봄날의 딸기밭에서 여자친구 '유'와 동성애적 관능에 빠져든다. 딸기밭에서 돌아온 후

그녀는 금지된 것들에 가까이 가지 않고 생의 불가능성을 받아들인다. 욕망의 이중구조와 에로티시즘의 전경화 등의 상상력이 색다르다.

“제 소설문법에 새로운 출구를 마련하고자 한 작품입니다. 모든 것이 금지됐던 억압의 상황에서 결핍과 풍요의 이중적 욕망을 그려보고 싶었어요. 문장도 쉽표를 덜 찍고 단문 위주로 단정적으로 서술했습니다.”

최근작인 <지금 우리 곁에 누가 있을까요>에서 그는 주인공의 말을 빌려 이렇게 썼다.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것들을 불러와 유연하게 본질에 닿게 하고 자연의 냄새에 잠기게 하고 싶은 꿈. 그렇게 해서 이 순간을 영원히 가둬놓고 싶은 실현 불가능한 꿈”이라고. 자신의 글쓰기를 새삼 되새겨본 것이다.

“처음부터 지금껏 이런 꿈이 계속돼왔어요. 하지만 여기서 점점 멀어진다고 생각되더군요. 이 작품에서 남편은 딸을 산 속 어딘가에 묻습니다. 내 글쓰기의 원형적 지점으로 돌아가고 싶은 열망을 이 대목에 담았습니다.”

속도의 시대에도 그는 여전히 느릿느릿 자신의 길을 더듬어간다. 후속작으로 단편 <배드민턴 치는 여자>를 장편소설화하는 일과 욕망이 살아있는 존재로서 우리의 어머니상을 그럴 장편소설을 구상중이다. 다음 작품은 키보드가 아니라 노트에 써보려 한다. 컴퓨터로 쓴 글과 육필로 쓴 글에 어떤 차이가 날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 박천홍 기자